산림청 가리왕산 스키장 전면 복원 착수

산림청이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스키 활강장의 전면 복원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일부 시설 존치를 추진하는 강원도에 복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다음달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3일 '한겨레' 에 따르면 산림청은 "정선군 북평면 일대 가리왕산 국유림(206만7,242㎡)의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 강원도에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 오는 31일까지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복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주도로 전면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고, 소요 예산은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 이라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 산림 복원 예산 802억 원 가운데 식생 복원 관련 예산 386억 원(48.1%)을 지원하고, 휴양림·휴양타운 등 산림복지지구 조성(예산 350억 원)도 제안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 복원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 일부시설을 존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애초 복원에 동의했던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인 곤돌라를 생태·평화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가리왕산 정상부에 남북 강원도의 주목 1,009그루씩 2018그루를 심어 올림픽 평화·생태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전성구 강원도 환경복원담당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곤돌라를 70억원을 들여 철거하는 것보다 생태·평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 이라고 말했다.

가리왕산을 끼고 있는 정선지역 사회단체 158곳은 11일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치를 위한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경 집회, 서명운동 등을 예고했다. 유재철 투쟁위원장(정선군의회 의장)은 "곤돌라·운영도로를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 산림청이 강제집행에 나서면 군민과 함께 막겠다." 고 밝혔다.

전년 외환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 4,036억 9천만 달러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 가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18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6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7억1,000만 달러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4,030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며 9월에 4,03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후 10월 4,027억5,000만 달러로 소폭 줄었으나 11월부터 다시 반등했고 12월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 증가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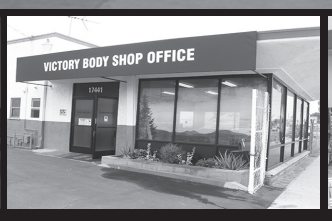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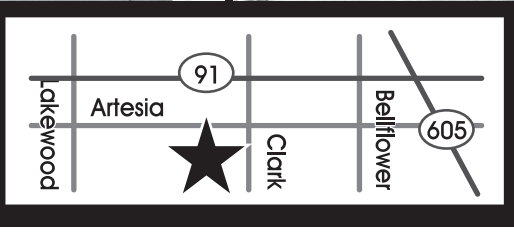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달러화지수는 지난달 말 96.40로 한 달 전보다 0.4% 하락했다. 달러화지수 하락은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를 의미한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96억 달러로 전달대비 33억5,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 137억3,000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27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인 SDR는 3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000만 달러 늘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인 IMF 포지션도 21억4,000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47억9천만 달러)은 전월과 변함없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다.

1위는 중국(3조617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83억달러), 3위는 스위스(7,960억달러) 순이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